

# 중고차 사려면 이달에 준중형 노려라

아반떼·K3 등 가격 크게 하락  
1000만원대 구매 가능  
평균 시세보다 하락폭 커  
수입차 1.73% ↓ 국산보다 더 커

## 2020년 2월 자동차 시세

국산				수입			
제조사	모델명	연료	시세(만원)	제조사	모델명	연료	시세(만원)
현대	그랜저 IG		1,863 ~ 2,694	벤츠	E-클래스 W213		4,431 ~ 5,355
	LF 소나타	가솔린	1,398 ~ 1,908		C-클래스 W205		3,073 ~ 4,158
	아반떼 AD		1,095 ~ 1,669	BMW	5시리즈 (G30)		4,058 ~ 6,890
	엔타페 더 프라이밍	디젤	1,837 ~ 2,639	3시리즈 (F30)		2,493 ~ 3,240	
기아	올뉴 투싼		1,604 ~ 2,266	아우디	뉴 A6		3,744 ~ 4,913
	G80	가솔린	3,333 ~ 4,556		A4 (B9)		4,805 ~ 4,805
	EQ900		4,560 ~ 6,584	쉐보레	더 넥스트 스타크	가솔린	526 ~ 839
	올뉴 K7		2,197 ~ 2,560	올 뉴 말리부		1,383 ~ 1,988	
KIA	더 뉴 K5 2세대	가솔린	1,409 ~ 2,056	볼보	XC90 2세대	디젤	5,681 ~ 6,782
	더 뉴 K3		1,057 ~ 1,385	미니	쿠퍼D	디젤	1,949 ~ 2,299
	더 뉴 소렌토		1,987 ~ 2,894	렉서스	뉴 ES300h	가솔린+전기	3,335 ~ 3,956
	스포르티지 4세대	디젤	1,589 ~ 2,191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	3,783 ~ 6,000
르노삼성	SM6	가솔린	1,300 ~ 1,877	포르쉐	뉴 카이엔	디젤	7,313 ~ 8,616
	CM6	디젤	1,723 ~ 2,116	도요타	뉴 캠리	가솔린	1,918 ~ 1,918
쌍용	티볼리	디젤	1,291 ~ 1,577	포드	익스플로러	가솔린	3,056 ~ 3,357
	G4 엑스런	디젤	2,378 ~ 2,918	재규어	XF(X260)	디젤	3,039 ~ 3,530

시세기준: 무사고 / 주행거리 60,000km \*자료출처: SK encar.com 2월 시세정보

2월 중고차 구매 수요자 줄면서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의 전반적인 중고차량 가격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차로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현대차 아반떼와 기아차 K3 등 국산 준중형 세단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번 달이 중고차를 구입하기에 적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SK엔카닷컴은 최근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BMW, 벤츠, 아우디 등 수입 브랜드의 2017년식 인기 차종의 중고차 시세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2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시세 하락 폭보다 큰 1.5%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2월은 설 명절 전후가 겹쳐 가계 지출이 늘고, 영업 일수도 적어 중고차 구매

역력이 떨어지는 등 중고차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다.

국산차는 전월 대비 평균 1.27%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기아차 K3는 같은 기간 최대가 기준 하락폭이 10.59%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K3 가솔린 모델의 가장 상위등급인 노블레스 등급의 매물 수가 적어 최대가 변동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아 K5는 조사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최대가 기준 1.53% 상승했다.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현대 아반떼 AD는 1090만원대, 기아 K3는 105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하락폭이 더 크다. 전월 대비 평균 1.73% 하락했다.

아우디 A4가 3.86% 하락해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재규어 XF가 2.74% 하락

해 뒤를 이었다. 최저가 기준으로 미니 쿠퍼D와 토요타 캠리가 200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엔카닷컴 관계자는 "생애 첫 차로 국산 준중형 세단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수요가 가장 높아지는 3월보다 구매 경쟁자가 적은 이번 달이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차 스팅어 주고객층 20~40대 남성 대상

### 구독형 할부 프로그램 '옴므 셀렉션' 출시

기아자동차가 새로운 형태의 '구독형 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0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텔라'의 주고객층인 20~40대 남성을 위한 업계 최초 구독형 할부 프로그램 '옴므 셀렉션'(Homme Selection)을 출시했다.

'옴므 셀렉션' 이용 고객은 총 36개월 할부기간 1.0%의 특별한 스마트 저금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M계열 카드도 10% 이상의 선수금을 결제, 현대캐피탈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할부금납입기간에는 넷플릭스·왓치플레이 등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지원금(총 50만원)과 태블릿PC를 증정하는 것과 패션·잡화, 스포츠, 자동차 등 분야별 남성 매거진 정기 구독권 및 면도날

정기 구독 쿠폰을 증정하는 두가지 구독 선택권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옴므 셀렉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2월 한달 간 전국 기아차 지점·대리점에서 스팅어 차량을 출고하며 1.0%(36개월) 스마트 저금리 할부 상품 및 100만원 상당의 원하는 셀렉션을 선택하면 된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스텔라에 대한 남성 고객분들의 꾸준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옴므 셀렉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 매력에 느껴지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팅어는 지난해말 기준 전세계에서 누적 판매 7만대를 돌파하며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서 가치를 입증 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10% 성장

220만9831대 판매

현대차 9위·기아차 11위

친환경 차량 인기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실적으로 각각 9위와 11위였고, 두 회사 실적을 합해 현대차그룹 실적으로 보면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10일 자동차업계와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 EV'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20만9831대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순수 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였으며 하이브리드차(HEV)는 제외됐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 브랜드는 테슬라로, 세계 시장에서 총 36만7820대를 팔았다.

2~4위는 중국의 비야디(BYD·22만9506대), 베이징자동차(BAIC·16만251대), 상하이자동차(SAIC·13만7666대)가 각각 차지했다. 5위에는 독일 BMW(12만8883대)가 올랐다.

현대차(7만2959대)는 폭스바겐(8만4199대)과 닛산(8만545대), 중국 지리자동차(Geely·7만5869대)에 이어 9위에 올랐다.

기아차(5만3477대)는 10위 일본 도요타(5만5155대)에 이어 11위였다.

현대차와 기아차 판매 실적을 합해 현대차그룹 실적으로 보면 총 12만6436대로, 폭스바겐을 가볍게 뛰어넘고 BMW에 조금 못 미치는 6위로 올라선다.

모델별로는 테슬라가 작년 본격적으로 공급한 모델3가 30만75대로 글로벌 1위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베이징자동차 EU 시리즈가 11만1047대로 2위를 차지했고, 닛산 리프(6만9873대)와 BYD 위안(6만7839대), 베이징차 바오준 E 시리즈(6만500대)가 5위권에 포진했다.

현대차 코나EV(4만4386대)는 9위에 올라 한국 차량으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차는 작년 유럽에서 니로 PHEV 1만144대, 니로 EV 9900대, K5(현지명 옵티마) PHEV 5653대, 쏘울 EV(3232대) 등 총 2만8911대의 전기차를 팔아 전년보다 33.9% 성장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소형 SUV '쏘넷 콘셉트' 첫 공개  
기아자동차는 최근 '2020 인도 델리 오토 엑스포' (2018 Delhi Auto Expo)에서 소형 SUV '쏘넷(SONET) 콘셉트'를 최초 공개했다. 첨단 기술이 탑재된 쏘넷 콘셉트는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독특한 스타일과 실용성이 강조된 도시형 SUV로 개발됐다.

<기아차 제공>

## 쌍용차, 유럽 수출 확대 맞춤형 마케팅 강화

브뤼셀·비엔나 모터쇼 참가

차량 전시·딜러 초청 홍보

쌍용자동차는 10일 벨기에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시장에서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해 유럽시장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달 10~19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2020 브뤼셀 모터쇼에 참가해 티볼리, 코란도, G4 렉스턴(현지명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 등 차량 14대를 전시하는 등 모터쇼를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어 16~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서 열린 2020 비엔나 오토쇼에 참가해 차량들을 전시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내 딜러들을 초청해 올해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

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브뤼셀 모터쇼를 통해 코란도 CNG(압축 천연가스) 모델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받았다.

코란도 CNG는 CNG와 가솔린을 모두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 퓨엘(bi-fuel) 타입의 친환경 차량으로 코란도 가솔린(1.5L 터보) 모델에 적용됐으며 1분기 중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쌍용자동차 영국대리점은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가 지난해 영국 사물구동 전문지 포바이포(4X4)의 '2020 올해의 픽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달 자동차 전문지 왓 카(What Car)가 발표한 '2020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20)'에서도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잇달아 각국의 가치를 인정받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0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 버려진 공장 아트 팩토리로 부활하다

산업시대 낡은 유산, 문화재생 핵심공간으로 부상  
- 광주·전남의 아트 팩토리  
- 전주 '팔복예술공장'과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문화 화제

계절의 시간 건너  
마음속에 피어나는  
윤희매

클릭, 문화현장④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순천 문화의 거리 & 청춘창고

위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돈다⑤  
현대미술과 자동차의 만남  
독일 뮌헨

도시디자인, 행복만 도시 풍경의 완성②  
공공건축 혁신으로  
살아난 작은 도시, 영주

에향 초대석

## 서울 우리소리박물관관장 최상일

"토속민요, 대중문화 창작 씨앗 가능"

문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부담한 것에 맞선 결기의 문학  
부산 김정환 문학관

2020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 출발의 문 앞에서 '위로'가 되는 문학' 꿈꾸요

2020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

김정환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⑦  
20세기 초 유럽 건축,  
각기둥 도입 이유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⑧  
대중문화 상품 흥행  
전략과 불법 마케팅

왕인의 '예술가의 한 끼'②  
궁핍한 화가 남관  
파리의 소꼬리곰탕

지역문화  
창작자들의 인큐베이터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소통 콘서트 인기

에향의 만난 이 사람

창극 '패왕별희'의 여장남자 소리꾼 김준수  
20년만에 광주 개인전 가진 화가 하성용  
함께, 히말라야 책 낸 오지 여행가 문승영  
'KIA' 떠나 '롯데'로 이적하는 안치홍

바둑마루 나도 한아취-고준  
바다에서 우주까지,  
고흥 드림 여행

질박한 분청과 신비한 우주  
-친한 형 유자와 커피